(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특집 — 통합야당의 방향과 전망

기회주의 틀 깨야할 '함께서기'

국민, 巨與 맞설 양당체제 확립 환영

지역 굴레 벗고 당 민주화 위한 노력 필요

Ⅰ. 들어가는 말

지난 10일 신민·민주 두 야당의 통합선언으로 국민의 여망으로만 남아있던 통합야당의 모습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다시 출현하였다.

그동안 간단 없이 제기되어온 야권통합이 비로소 성사된 것이다. 사실 두 야당의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통합노력을 형식과 명분축적용으로 비판해온 논자들이 많았고 또 그러한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야당은 명분만으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두 야당의 참패로 증명되었다. 두 야당은 각기 국민지지를 자신하며 선거에 임하였고 총력을 경주하였다. 신민당은 제1야당의 여당견제력회복을 호소하며 득표활동을 벌였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비호남권 야당건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집권여당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이다. 이는 분열된 야당으로는 거대여당을 이길수 없고 자멸해갈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여주었다.

두 차례의 선거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통합에의 길을 제시하여 주고 각성을 촉구한 일대 전기가 되었다. 특히 지배집단이 정권재창출의 메카니즘으로 이용하여온 지역감정은 두 야당의 미래를 어둡게할 뿐이지 결코 장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은 야권통합에 매진할 촉매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민·민주 두 야당의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자생노력일 뿐이지 진정한 통합의지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적 상황압력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통합은 언젠가는 당파적 이해에 따라 분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민·민주 두야당의 통합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몇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로 오늘날의 정치현상을 규정하는 몇가지 부정적인 현상, 즉 망국적 지역감정과 정치적 허무주의, 나아가 집권당의 강권통치 일변도의 통치행태 등에 어느 정도 변화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두당의 합당이 영남과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실질적인 주체의 통합이라는 것과 통합의 효과가 단순한 의석수의 합산이 아니라 정치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상승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데 근거한다.

둘째로 3당야합으로 형성된 불합리한 정치권의 구조와 여야밀월구도를 분쇄할수 있는 가능성을 국민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야당은 당대당 통합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기 지분을 내세우지 않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참신한 인물을 등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통합야당이 진정한 집권대체세력으로서의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민주개혁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Ⅱ. 통합야당이 향후 정치일정에 미치는 영향

야권의 끊임없는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쉽게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은 집권세력이 여론조작을 통하여 조성한 지역감정이 주 원인이다. 집권당은 이를 통하여 정당한 노력 없이 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권력다툼만 일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집권당의 책동에 의한 지역감정의 공동희생자이면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못했다.

왜나하면 두야당은 보수야당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 기득권유지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이기에 불합리한 구조일지라도 자신의 입지만 보장되면 그 체제를 환영한다.

이러한 두 야당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으로 통합한 것은 정치사의 한 이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통합야당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야당은 거대 여당의 집권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나약한 존재이었다. 그러나 이제 집권여당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끊임 없이 도전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강권에 묻혀버린 수서비리사건이나 한보특혜융자사건, 오대양사건 등이 다시 재론되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야당은 지역감정책동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정치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당의 독주로 제기능은 다하지 못한 국회가 거대 여당에맞선 강한 야당의 출현으로 대정부견제기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Ⅲ. 통합야당의 과제와 진로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견해가 현실정치에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정당당한 정치게임이 이루어지고 통합야당이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버리고 민주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여당이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은 당파적 이익에만 안존할 경우 국민은 결코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될 것이고 통합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3당통합 이후 집권야합세력은 기만적인 대중조작술로 정치세력의 민주對반민주구도를 보혁구도로 왜곡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지역감정과 고도의 통치기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뿐 결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합야당은 기만적인 보혁구도에 현혹되거나 야합하지말고 국민만을 의지하며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정당으로 도약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당내민주화를 통하여 야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일인지배니 일인사당이니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비판은 권력집단의 권위적인 통치와 하등 다를바 없다. 따라서 통합야당은 참신한 인재를 계파에 구별없이 폭넓게 등용하고 이를 통하여 당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로 통합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지분싸움이나 당권다툼에 당력을 소비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조직책인선에 관하여는 철저하게 인물본위로 선출하여 야당의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세째로 거대여당에 대항하여 수권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에 만족하지않고 야권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권여당은 엄청난 자금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야당은 통합야당이라고 해보아야 원내의석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왜소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항하여 각족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으 규합하여 야권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권여당은 지금까지 차기 재집권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계파간에 권력다툼이나 하며 야당을 업신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야당의 출범으로 그들의 의도가 위협받게 되었다.

그래서 집권세력은 통합야당을 흠집내려는 갖가지 기도를 할것이다. 이에 맞서 통합야당이 명실공히 지역당의 굴레를 벗고 국민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를 분쇄하고 지역과 계파를 초월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통합야당은 산술적인 의석수나 지지율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의 나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함께 정책개발을 통한 수권능력을 갖출 때 국민은 결코 통합야당을 외면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Ⅳ. 나오는 말

8·15해방 이후 46년 동안 국민의 염원에 따라 정권교체를 한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우리 국민은 집권대체세력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통합야당이 출범하자 모두가 환영하였다. 이는 해방이후 누적된 역사의 질곡과 불평등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한 국민의 바램이 통합야당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 통합야당을 이룬 두 야당은 보수적 정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어내고는 있으나 국민의 여망을 본질적으로 성취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들이 언제 또다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각기 당파적 이해를 찾아 분열할지도 모른다.

역사는 보수정당을 평가하는데 그다지 관대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보수정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질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의 때가 오면 국민도 버린다. 그러나 보수정당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통합보수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은 아직까지 이들 보수야당을 대체할만한 지지 기반을 가진 진보정당이 없고 구심력을 가진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자세만을 고집하여온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정권으로부터 배제시킬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통합야당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은 왜소야당의 통합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통합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확산시키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노력과 정책개발, 민주적 당운영, 당체질 개선 등에 힘써야할 때이다.

이 재 훈
〈대학원석사1기·법학〉

◇두 차례 선거는 두 야당이 통합에의 각성을 촉구하는 전기가 되었다

다시 되새기는 한가위의 의미

인간미 상실하는 추석 풍속도와 우리의 고향

데스크 칼럼

오 세 윤
〈본보 취재부장〉

□ 세시풍속의 의미

농경은 지금까지 유구히 우리나라의 천하지대본이었으며 우리는 해마다 철을 따라 준비도 하고 풍년의 염원, 추수의 감사도 해왔다. 세시풍속은 이러한 염원과 감사를 조상들이나 자연에게 기원하는 날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생산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명절행사들도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농경을 위했던 농경본위의 세시풍속이었던 셈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추석

추석이라 함은 전체 명절중에 결실의 날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명절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추석만 되면 각자가 고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고향을 생각하며 명절을 지새우곤 한다. 더불어 추석에는 그 해에 거두어 들인 곡식과 함께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묘를 지내고 농촌에서 마을 단위로 강강수월래 등 각종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추석은 옛날의 세시풍속과는 그 풍속도가 근본적으로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서로 못만났던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훈훈한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안해주는 모습들이 많았으나 언제부터인가 추석은 단순히 쉬는날, 또는 차타고 고생하는 날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석에는 으례히 자신들의 직장상사나 위의 직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사해야 하는 날인 반면 조상들과 일가친척, 이웃들에게는 서로 인사하는 것을 도외시하는일이비일비재하다.

이와같은 결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추석을 전후로하여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고위관직에 대한 금품수수가 날로 판을 치고 있는 이시기에 추석은 아부하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좋은 대목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추석을 통해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는 커녕 사대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갈수록 급팽창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이다.

□추석과 농촌의 현실

작금의 농촌의 현실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제나 푸근한 어머니의 품같은 농촌의 이미지를 벗어난지 이미 오래이다.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외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생산되어진 외국쌀의 반입등 현재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농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농촌인력, 땅이 있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안지어 벌거숭이로 변하는 농토를 바라보며 미래의 우리들의 안식처는 어디일까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추석의 의미중 하나인 생활의 변화와 리듬을 주는 생활의 활력소인 동시에 노동력의 재창조라는 특성의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되어간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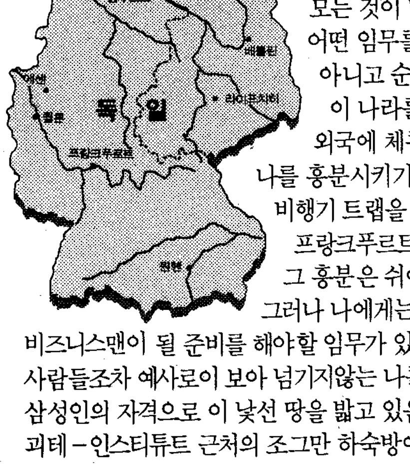
□어머니의 품같은 농촌

앞에서도 밝혔듯이 세시풍속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추석은 전체사회의 생활주기이며 큰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갈수록 흉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인간미가 없어져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러한 현실을 추석이나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통해 약간만이라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작용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갈수록 피폐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예전의 우리들의 기억속에 지리잡고 있는 어머니의 품같은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어떤 임무를 갖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배움의 목적으로
이 나라를 떠나 1년 동안이나
외국에 체류한다는 사실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릴 때도
그 흥분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될 준비를 해야할 임무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사로이 보아 넘기지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삼성인의 자격으로 이 낯선 땅을 밟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괴테-인스티튜트 근처의 조그만 하숙방에서 나의 독일생활은
시작되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새로움이었고 내 젊음은
그 모든 새로움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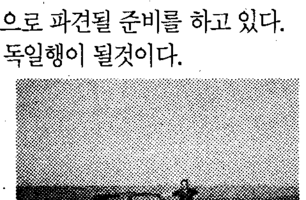
독일의 하늘은 회색이다.
그 회색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사색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독일인은 그 우울을 사색으로 발전시켰다.
괴테가 그렇고 릴케가 그렇고 레마르크가 그렇다.

독일어로 그들의 시와 소설을
다시 읽었다.
어느새 나는 독일인이 된
기분으로 그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몸에 배인 근면성이 있다.

벼룩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고시장에서 산 남이 쓰던 물건을
아무 거부감없이 사용하며 그런 거래를 통해 상인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근면성이 2차대전으로 인한 폐허의 독일을 경제기적의
나라로 일으킨 것이다. 또한 독일인들은 철저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다.
직업이 갖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직업은 단지 자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법과 철학의 나라다운 국민들이었다.
한번은 자동차운전자가 술에 취한 보행자를
치었는데 그는 재빨리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차에 치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의
알콜농도 검사를 통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독일은 소박하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또한 과감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가는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일리없는 무형의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독일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독일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더우기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배움의 목적으로 독일에 와 있는 나를 그들도 반쯤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 쩔쩔매던 시절 너무도 친절한 도움을 준
한 상원의원, 로맨티크 가도를 안내하던 마를렌느,
나를 독일인으로 착각하게 해준 하숙집 아줌마.
그들은 나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작은 독일들이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독일행이 될것이다.
벌써 마음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듯 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나를
그려본다.
당당한 비즈니스맨으로
독일땅을 밟고 있을 나를—



삼성은 매년 입사 3년차의 신입사원 400명씩을 선발하여 지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1년간 세계 45개국에 독신파견하고 있으며 3년후인 94년에는 약 2,000여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91년부터 입사 3년차의 신입사원중 10%를 선발하여
세계 45개국에 1년씩 파견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해가는
독신파견 지역전문가 양성제도는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현지언어습득, 商관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교 등의 큰 줄기외에는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三星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결국 사람의 국제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에 젊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